

투데이 칼럼

‘민주주의의 꽃’ 선거, 진흙탕 싸움으로 변해선 안돼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이 진부한 표현이 시대를 관통하며 살아남은 이유는 선거야말로 시민의 주권이 현실의 권력으로 치환되는 유일무이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전개되는 시장 선거 정국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꽃향기가 나아 할 선거판에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각 후보 진영에서 쏟아내는 메시지의 상당수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흠집내기에다. 정책적 허점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비판은 온데간데없고,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네거티브 전략은 단기적으로 상대의 지지율을 꺾어내려는 데 효과적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다.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감을 키우고, 정작 우리가 논의해야 할 지역 사회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뒷전으로 밀어내기 때



이복형

정읍시의회 의원

문이다. 경선은 ‘누가 더 나쁜가’를 가려내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누가 더 적임자인가’를 증명하는 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

정책 대결의 부재만큼이나 우려스러운 점은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공약들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나 공약들을 마치 개인의 쌈짓돈 쓰듯 약속하는 후보들이 적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시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행정의 수반이지,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하고 확정하는 독점적 권력자가 아니다. 지방자치법상 예산의 심의와 의결권은 엄연히 지방의회에 있다.

의회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발표되는 예산 관련 공약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는 의회를 단순한 거수기로 취급하는 독단적 행정의 예고편이며,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빌 공(空)’자

공약은 당선 후 행정과 입법부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후보자들은 다시 ‘정책’과 ‘상행’의 무대로 돌아와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시장은 상대의 약점을 잘 잡는 싸움꾼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가진 전략가다.

이제라도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후보들은 자신의 공약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재원 조달 방안은 현실적인지 스스로 검토하고 시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선거의 품격은 후보자가 만들고, 그 수준은 시민이 결정한다. 이번 시장 선거가 진흙탕 싸움을 넘어 정책으로 승부하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비방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시민들의 눈은 더욱 매서워지고 있음을 후보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이란 전쟁 반대”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인근 리퍼트 공원에서 활동가들이 이란 전쟁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상하이 만찬서 견배 제안하는 대만 국민당 주석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이 7일(현지 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무원 대만 시무판공실 송타오 주임과의 만찬에 참석해 견배를 제안하고 있다.

사설

제2회 한글신랑 캘리신부 회원전

‘제2회 한글신랑 캘리신부 회원전’이 지난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 기스락 2실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참여 회원들은 모두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금요일 주간반과 화요일 야간반에서 서예를 배우는 수강생들이다. 한글서예와 캘리그래피 서예반 수강생들이었다.

순결에 걸리는 화선지의 가솔함 뒤에는 수많은 결이 숨겨져 있다. 먹물을 기다렸다는 뜻이 포근함이 숨 쉬고 있다. 갈수록 빨라지는 세상만큼이나 패스트푸드, 솜뭉치 등 더 좋아하는 이 시대에는 빠르게 문자를 두드려 완성하는 세상이 아니다.

하얀 화선지에 먹물과 붓으로 한 자 한 자 완성해가는 시간, 이 배움은 자신과의 싸움일 수 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좋아해야 하

고, 더 중요한 것은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회는 각각의 작품이 저마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인내심이라는 재주를 가지고 시간을 수놓듯이 써가는 그 순간들이 성취감으로 남겨지는 진정한 배움이다. 풀잎 김경옥 지도강사는 “화선지가 결코 채워져 있듯이 차곡차곡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마음속에 담아서 손끝으로 피어나는 글씨마다 정성이 가득하다. 한편 풀잎 김경옥 작가는 아시아캘리그래피 심사, 충청미술대전 심사, 전주 한글 서예회 대회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서가협회 초대작가, 전북지회 수석부지회장도 맡고 있으며, 우리글터, 전북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수천의 예술세계 조망

전북도립미술관은 정읍 출신 예술가 전수천(1947~2018)의 예술세계를 조망하는 ‘전수천: 언젠가 거인은 온다’ 전시를 3월 13일부터 개최했다.

전북미술사 연구 시리즈는 지역 미술가를 발굴하고,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기획 전시다. 이번 전시는 기존의 전통·지역성 중심 연구에서 나아가 재료와 매체의 확장을 통해 시대적 질문을 던진 작가 전수천의 작품 세계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전시는 자연, 문명, 사회(자본), 인간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관람객들은 1993년 베니스비엔날레 출품작인 ‘방황하는 행성들 속의 도우그 한국인의 정신’(1995)을 비롯해 미국 대륙을 캔버스 삼은 ‘움직이는 드로잉’(2005), 자

본주의 사회를 다룬 ‘바코드’ 연작, 인간 내면을 탐구한 회화 작품 등 주요 작업을 만나볼 수 있다.

여기서 ‘거인은 외부의 구현자가 아니라 자본과 문명의 시스템 속에서 실존적 자각을 이룬 미래의 인간을 의미한다. 전수천이 무엇을 만들었는보다 무엇을 흔들고 질문했는가에 주목한 전시다.

전수천은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해에 특별상을 수상한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2005년에는 748일 동안 미국 대륙을 횡단하며 진행한 ‘아트랙 프로젝트’ 등 실험적인 작업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회화와 조각, 영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한국 현대미술의 표현 영역을 확장한 작가로 평가받는다.

사내 · 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